

화순군청 임애지, 한국 여자 복싱 새 역사 썼다

54kg급 4강서 2-3 판정 패 여자 복싱 최초 동메달 획득 “아쉽지만 가능성 연 무대”

화순 출신 임애지(25·화순군청)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복싱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수확하는 새 역사를 썼다.

임애지는 지난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 준결승전에서 하티세 아크바시(튀르키예)에 2-3(28-29 27-30 29-28 27-30 29-28)으로 판정패했다.

임애지는 1라운드에서 빠른 스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하며 유효타를 성공시켰지만 심판 5명 중 2명에게만 우세 판정을 받으며 2-3으로 밀렸다.

1라운드를 내준 임애지는 2라운드에서 적극적인 인파이팅으로 전략을 바꿔 유효타를 쌓았지만 이번에도 심판 4명이 아크바시의 손을 들어줘 1-4로 졌다.

임애지는 3라운드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힘을 냈지만 방어에 나선 아크바스를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고, 2-3으로 저 결국 판정패했다.

임애지는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복싱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에서 패한 선수 2명 모두에게 동메달을 준다.



동메달을 획득한 임애지가 4일(현지시간) 프랑스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 준결승 튀르키예 하티세 아크바시와의 경기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나서며 튀르키예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로써 한국은 2012 런던 대회 한순철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복싱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복싱만 놓고 보면 최초 메달이다. 여자 복싱이 2012 런던 대회에서 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한국은 한 번도 시상

대에 오르지 못했다.

임애지가 복싱계에 입문한 것은 화순중 2학년 때였다. 화순초등학교 5학년 때 육상을 했는데, 진학한 중학교에 육상부가 없어서 아쉬워하던 중에 집 근처에 있는 복싱체육관이 눈에 띄어 들렀다가 복싱에

매료되면서 취미로 시작했다.

운동이 하고 싶어 시작한 복싱이지만 임애지의 재능은 남달랐다. 복싱에 입문한지 1년 만인 화순중 3학년 때부터 가능성을 보였다.

당시 여중부 전국대회가 없는 탓에 전국대회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화순군수배 복싱대회 등 지역에서 열린 2차례 대회에 출전해 모두 우승했다.

특히 일반부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싸워 우승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했다.

임애지는 뛰어난 기량과 두툼한 배짱을 갖췄으면서도 부지런했다. 부단한 훈련과 꼼꼼한 경기 피드백도 놓치지 않았다.

매일 기상 이후 새벽 1시간30분 동안 중·단거리 달리기 훈련, 방과 후에는 4시간 동안 체육관에서 줄넘기와 샌드백 훈련에 전념했다. 아파도 훈련을 거르는 날이 없었다.

경기 전에는 촘촘한 상대 선수 분석과 전략을 세웠고, 경기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을 기록하며 복싱에만 전념했다.

임애지의 노력은 ‘2017년 세계유스여자복싱선수권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다. 전남도대표 선수로 활동하던 임애지는 60kg급 결승전에서 이탈리아 선수를 꺾고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 세계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복싱의 새 역사를 장식했다.

또 2020년 3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복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여자 페더급(57kg급) 8강전

에서 인도의 사크시를 상대로 5-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둬 준결승에 오르며 한국 여자복싱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란 쾌거를 이뤘다.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인 도쿄 올림픽에서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심기일전 한 임애지는 고강도 훈련을 통해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다시 따내며 재도약에 나섰고, 12년 만에 한국 복싱 올림픽 메달이자 여자 선수 최초 올림픽 메달 주인공이 됐다.

임애지는 경기 후 “결과는 아쉽지만 후회되지 않는다. 가능성을 본 무대였다”며 “한국에 돌아가면 실전처럼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 경기력을 실전 만큼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순 하늬움 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과 딸의 경기를 지켜본 어머니 이영애 씨는 결승 진출 실패에 아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다.

이영애 씨는 “(임)애지가 잘 싸웠는데 편파 판정으로 저서 아쉽다. 금메달을 향한 도전은 좌절됐지만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 메달을 따내는 역사를 써서 자랑스럽다”며 “투기 종목에서 여자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어깨와 다리 등의 부상에도 힘든 티를 내지 않고 힘있고 씩씩하게 뛰는 걸 보니 대견하고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어 “애지가 오면 엄마표 감자탕을 해주고 싶고 밤새 수다를 떨면서 격려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최동한 기자 cdstone@jnilbo.com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쟁걸음’

영광·신안 발전사업 조건부 허가 “재생에너지 필요 기업 유치 온힘”

전남도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제300차 전기위원회에서 도가 찬성의견을 제출한 영광 칠해1·2,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화건설이 신청한 영광칠해1·2는 발전용량 각각 510MW로 함께 1020MW다. 전남개발공사가 신청한 신안 후광은 발전용량 323MW 규모로 사업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기존에 허가받은 16GW 규모에 이번 1.3GW 규모를 더해 총 17.3GW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용량은 기존 27.6GW에서 28.9GW로 늘어났으며, 전남은 이중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해상풍력 잠재량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386.5GW)의 32%인 125GW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건부 허가하는 한편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추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산업부가 지

난 5월 추가접속을 제한하는 계통관리변전소를 지정함에 따라 접속 제한시기인 2031년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7월 26일 여수·고흥·해남·영광·신안 5개 시군과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주도 신규 345kV 변전소 건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상구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전남은 부족한 전력계통으로 계통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계통 조기 건설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다양으로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유치에 온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 완료된 16GW 발전단지가 계획 기간에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SK E&S가 주도하는 국내 최초 99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을 올해 12월 앞두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성육상 후보자 추천 바랍니다.

성육상은 (재)성육문화재단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낸 인사를 표창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선내화(주) 창업자 성육 이훈동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각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 성육상 1명 (상패와 상금 5천만원)
2. 시상부문 : 교육, 예술, 과학, 체육, 언론문화, 사회봉사
3. 후보자자격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출신자와 이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 각 부문 단체와 기관을 우선함.
4. 후보자 추천자격
 - ① 성육문화재단 임원
 - ② 공공기관, 학술단체, 사회단체, 교육기관의 장
5. 추천 서류
 - ① 추천서(소정양식) ② 이력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업적증빙자료
6. 접수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7.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일
 - 발 표 : 2024년 11월
 - 시 상 : 2025년 3월
8. 서류제출 및 문의 : 목포시 영산로 11(유달동4-2)

(재)성육문화재단
전 화 : 061-244-2527
홈페이지 : <http://www.sungok.or.kr>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우림건설(“갑”)과 케이에스씨건설주식회사(“을”)는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제출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05일

(갑)주식회사 우림건설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4길11-8, 2층(남성동)
대표이사 전 화석

(을)케이에스씨건설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안신기2길 39-4, 1층(가곡동)
대표이사 강 성춘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에이치비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는 2024년 8월 5일, 주식회사 부흥개발(이하 “을”이라한다)는 같은 달 5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 무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출일 다음날부터 1개월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갑” 에이치비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95
대표이사 김영두

“을” 주식회사 부흥개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들샘길 25
사내이사 김정란

공 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개요
 - 1) 사업명칭 : 진도산월솔라파크
 - 2) 사업위치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861 외 124필지
 - 3) 사업면적 : 581,543㎡ (175,917평)
 - 4) 사업규모 : 약 72MW
 - 5) 사업시행 : 진도산월태양광발전(주)
2. 발전사업 주요내용
 - 1) 발전설비 용량 : 약 72MW
 - 2) 사업개시 예정일 : 선로 확정후 8개월 (중공예정)
 - 3) 사업 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진도산월태양광발전(주)
4. 의견 제출
 - 1) 기 간 : 2024년 8월 06일 ~ 2024년 8월 14일
 - 2) 방 법 : 이 메 일 - wh.yun@sk.com
 전 화 - 010-3551-494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은가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